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1월 2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4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. 24(화)	담당부서	에너지신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유법민 과장(044-203-5360)	담 당 자	김태우 사무관(044-203-5363)

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·금융계가 머리를 맞대다

- 「에너지신산업 금융 · 투자협의회」 첫 회의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은 1. 24.(화),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업계의 금융·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1차 **「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협의회」**를 열었다.

○ 본 회의에는 산업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엘지(LG)전자, 삼성 에스디아이(SDI), 에스케이 이엔에스(SK E&S)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*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** 및 한전 등 전력공기업 임원 25명이 참석했다.

* LG전자, 삼성SDI, LS산전, 효성, 유니슨, 에스에너지, LG U+, SK E&S, 포스코, KT
**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삼성카드,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무역보험공사,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

□ 지난 1. 4. '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간담회'에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**에너지신산업 투자주체인 업계**와 **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계 상호간 이해를 높여야한다는 공감대**를 형성했다.

○ 이에 에너지신산업 **기업과 금융기관간 정보를 교환**하고, 업계의 **투자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**하기 위해 본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□ 에너지신산업은 **투자, 보급의 성과가 가시화**되고 있고, **수출도 본격화**하는 추세이나, **성공사례를 확산**하고 **해외진출도 확대**하기 위해서는 **규제, 금융, 민원 등 세 가지 문제 해결이 필수**다.

○ 특히, 금융에 있어 **업계**는 신재생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**대출조건 완화, 에너지신산업 설비의 담보가치 인정 등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**하며,

○ **금융기관**들도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**업계와의 소통**과 **에너지신산업 설비·기기에 대한 신뢰성있는 담보가치 산정**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.

□ 본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**참여기업**들은 판매한 제품의 성능보증 기간을 늘리거나 출력에 대한 보증 강화 등을 통해 **에너지신산업 제품·설비에 대한 신뢰성 향상**에 노력하고,

○ **금융기관**은 **에너지신산업 전용금융상품 개발, 대출조건 완화,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업계의 투자부담을 완화**하기로 했다.

○ 간사기관인 에너지공단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**에너지신산업 자산(담보)화를 위한 잔존가치 기준**을 시장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.

○ 정부도 에너지신산업 **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원활한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**해나갈 것이며,

- 에너지신산업 **금융·투자애로**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를 통해 **해결방안이 논의**되어 **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이 활성화**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.

□ 산업부 김학도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에너지신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업계의 **투자불확실성 해소**와 **금융기관들의 투자대상 확대**가 함께 이뤄진다면 **업계와 금융계가 상생(win-win)**할 것이며,

○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**규제, 금융, 민원 등 세 가지 문제**를 **관계부처·지자체·업계·금융계와 머리를 맞대고 동시에 해결**해나가겠다.“라고 밝히고,

○ 협의회에 참여한 **기업과 금융기관**에서도 **에너지신산업 금융상품 개발·출시,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등 성공사례 창출**에 적극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김태우 사무관(☎ 044-203-53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| 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협의회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간담회(1.4일) 행사 시, **PF 활성화**를 위해서는 **업계-금융계간 교류 등 상호 이해**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

□ 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협의회 구성·운영 개요

◇ 에너지신산업 관련 **민간·공기업, 금융기관**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**금융·투자 애로 해결, 금융상품 개발, 정책아이디어 수렴** 등을 위한 **논의의 場**으로 운영

○ (참여기관) 에너지신산업 **금융기관·민간기업** 임원급 구성

※ 에공단(간사기관)은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

○ (논의내용) **업계 투자동향 논의, 금융·투자 애로사항 발굴·해소, 에너지신산업 금융상품 개발 협력 등 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 관련 사항**

○ (개최시기) **분기별 1~2회 정기적으로 개최**

◇ Kick-off회의 개요

○ 일시·장소 : 1월 24일(화) 14:00~15:30, 팔래스H(서울)

○ 참석 :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, 에너지신산업 업계·금융계 임원, 한전, 에공단

- (업계) LG전자, 삼성SDI, LS산전, 효성, 유니슨, 에스에너지, LG U+, SK E&S, 포스코, KT
- (금융계)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삼성카드,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무역보험공사,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

○ 주요 내용 :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,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동향 및 애로사항 논의
